

# 전자대장경 법음 가상공간서 '나라'

## 99년 한국불교 정보화 어디까지

개별화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즉 이진수(+-)로 변환해 축적하는 정보화 시대가 열렸다. 90년대 초 중무형 정 전산화가 추진되는 등 '정보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불교계는 이제 멀티미디어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대를 맞았다.

불교계는 전산화의 틀 속에서 가공된 '정보'의 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99년 한 해 동안 불교계에서는 PC통신, 인터넷, 인터넷TV 등을 매개체로 '정보화'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불교계 '정보화' 현황과 전망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가 '디지털화', 즉 개별화된 자료를 모으는 정보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년 남짓 된다. PC통신에서 불교동아리가 생기고, 불교방송이 '불교 공공정보'를 개발·보급하면서 첫발을 내딛은 후 조계종 총무원이 98년 11월 사찰·기관·불교학·인물 등을 멀티미디어 정보로 제공하는 '달라넷 프로젝트'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불교계는 천리안·하이텔 등의 통신망에서 문서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인터넷과 인터넷TV 등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3차원 정보를 서비스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 정보를 축적하는 '정보화'에 불교계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불교계 전반에서 '전환 시대'의 상황, 즉 정보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 PC통신

불교계 정보화 첫 무대였던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기존 통신망에는 이미 불교동호회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대학생불교연합회, 정토회, 불교경전연구회 등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후발주자인 넷츠고, 채널이온, 신비로 등 전국통신망과 경주·부산·논산 등 지역통신망에서도 불교동호회들이 잇달아 개설됐다.

이들 불교동호회들은 올 한 해를 신행뿐만 아니라 전자포교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불교계에서 PC통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산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한글교육원은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통계자료를 게재하고 북한동포 돕기를 호소했다. 지비의전화는 상담사례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전자우편 상담도 너도 개설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95년부터 98년까지 장기기자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기증자를 모집했고, 소재새마을도 인터넷에서 후원자를 모집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피안넷(PIAN-NET)은 하루 평균 2백여명이 접속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비백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국제원효학회, 전자불전연구소 등 학술단체

- PC 통신 인구 350만...동호회·사이버법회 활발
- 인터넷 홈페이지·쇼핑몰·TV 전자포교 선도
- 정보사업 종무관리SW·디지털불경등 CD 출시

또 불교동호회는 불교계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장으로써 PC통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계종사태를 격정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불교동호회 게시판에 실시간 게재돼, PC통신이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매체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PC통신에서 불교계는 주로 동호회나 신행단체 위주로 조직되고 있는 것에 비해 기독교계는 교회, 선교회, 대학, 성경, 신학, 문학 등 각종 연구모임과 기도모임, 독서모임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PC통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교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인터넷과 인터넷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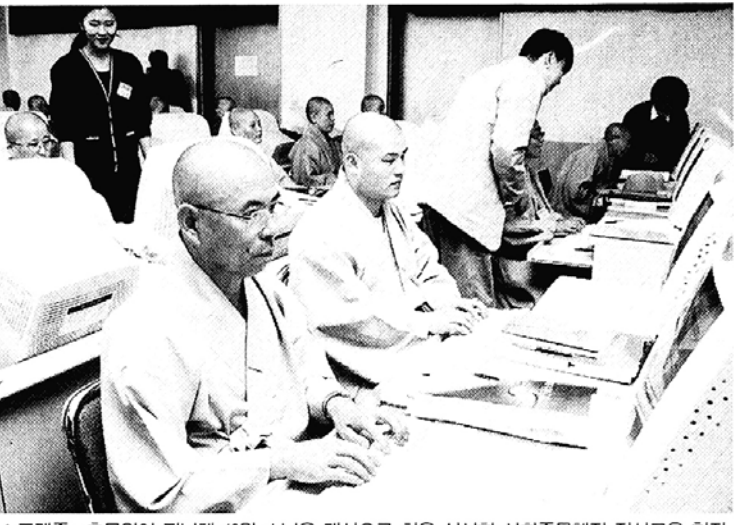
지난 한 해 동안 종단과 교계 신문·방송국은 물론 복지·봉사단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연이어 개설, 인터넷 활용에 지대한

에서도 불교문헌 전산화에 주력했다. 부다피아 쇼핑몰은 교계 최초로 가상공간에 불교용품점을 개설, 불교계 전자상거래 시대를 열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산화에 첫 발을 내딛은 후 6년 동안 불교계의 정보기술이 급성장했고, 종단이나 거대 신행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 신행단체에서 '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올 한 해에도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불교정보의 다양성과 양적 성장이 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몰라도 가정용TV로 인터넷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는 '인터넷TV'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올해 처음 종단 전산화 계획을 세운 천태종의 경우 전산화의 일환으로 '인터넷TV'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계종, 진각종에서도 인터넷TV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컴퓨터



에 익숙하지 않은 스님들이 번거로운 전산 교육을 받지않고 가상공간에서 '불교정보'를 이용하기에는 인터넷TV만큼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 인터넷TV의 보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불교계 '정보화'의 결실물로 작용해 왔던 '승가의 인식 부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업**

투투컴퓨터 등 사찰종무관리프로그램 개발 전문업체들이 다양한 종무 관리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잇달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고려대장경' '디지털불경' '화엄번상도' '불교학보' '한국불교학' 등 불교 관련 CD타이틀이 속속 출시돼 불교계 정보사업도 성장했다. CD타이틀 제작에는 천리안, 하이텔, 승가대 등 다년간 축적된 전자문헌을 소유하고 있는 가상공간의 신행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전

전산 입력만을 위해 결성된 천리안의 '불교경전연구회'에서의 CD타이틀 제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계 정보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올 한 해에도 불교계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인터넷TV를 이용한 '정보화'에 쏟는 노력이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 개인이나 집단 등 개별적인 힘과 역량만으로 다양한 정보 축적을 시도하여, 정보의 중복과 인력·재정의 분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불교 조직인 '정보·통신위원회'(가칭)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이 발족하면 교계 정보화의 거시적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대만서 열리는 전자불전회의

경전 전산화와 관련해 유일한 국제협의체인 제5회 전자불전회의(EBTI)가 18~22일 대만의 국립연구소 '아카데믹 시니카(Academic Sinica)'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12개국에서 60여명의 불교학자·정보화자들이 대거 참여해 상황을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전자불전회의의 정점은 '보다 많은 한자를 쉽게 입·출력'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한자를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기술에 대해 열린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현재 한자 입·출력에 이용된 2바이트 체계는 1만5천여자만을 사용할 수 있다. 대장경에 사용된 8만자의 한자가 한문장경의 전산화의 결실물인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이런 회의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개발한 4바이트 워드프로세서 '고려워드'와 고려대장경 인터넷 웹서비스 등을 시연,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일본 등 4개국에서 진행되는 한문경전 전산화의 의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와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 종교철학) 등도 참석. (한국불교 전서) 전산화와 산스크리트사전 발간 등의 진행 과정을 각각 설명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제1회 전자문화지도회의(EMCI)도 함께 진행됐다. 미국 버클리대학 랭카스터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자문화

지도회의는 각국 문화유산의 정보를 담은 멀티미디어 전자지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

전자문화지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계지도도 제공하고, 그 위에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인터넷 기술로 맵핑(Mapping)해 제공한 것. 전자불전회의와 전자문화지도회의가 함께 열리는 것은 대장경이 아시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기 때문.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은 "문헌의 데이터베이스화에만 주력해온 경전 전산화 사업이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전자문화지도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자불전 회의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공인받는 계기를 맞게됐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해탈을 위한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박타를 경험하세요!**

- 아박타는 신념이 결핍한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박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을 소멸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박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고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 아박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해 한다.

"아박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적식에 맞지 않는 정도로 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박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박타의 이름으로..

- 아박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박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박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박타 센터** 0523) 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 882-1149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가전제품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b>심야전기보일러</b>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b>심야전기온돌</b>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b>심야전기온수기</b>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하므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심야전기온풍기</b>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마루방앗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의전화  
☎ 0343) 468-7200(대)  
\*영남부: 0343) 445-6090  
\*FAX: 0343) 445-3370

**불교살력**

추가제작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43년도 불교달력을 배분하시다 부족하신 여러 스님네의 요청에 의하여 불교달력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유력 설까지 적은양의 달력도 주문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강진정판사**  
TEL. 02)272-2371 · 269-5040  
02)275-9472  
FAX. 02)268-2391

謹·賀·新·年

**한 일 시멘트공업(주)**

대표이사 허동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TEL : 02)531-7000